해남 우수 농수특산물 세계시장 진출 탄력

해외상설판매장 수출상담회
미국 등 판촉 행사 매출 급증
맞춤형 컨설팅·인증 취득 지원

해남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수출을 희망하는 2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사 초청 수출상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게 다양한 수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에서 직접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초청해 입점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상담회는 최근 해외수출 활성화에 따른 관심을 반영하듯 지역 내 20개의 농식품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상담회에서는 전남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판매장 운영 5개사가 전문 상담을 통해 해외 상설판매장 입점절차, 상품의 개선방향과 유통사별 물류, 위생, 품질기준 등을 공유했다.

해남군은 지역내 업체들이 해외 상설판매장에 입점을 지원하고 내년 해외 상설판매장을 연계한 판촉행사를 기획해 지역 농식품 수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올해를 해외수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수출 지원으로 해외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 활성화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남체인 2개점에서 해남농식품 판촉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LA한인축제에도 처음으로 단독부스로 참가해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모든 물량을 완판했다. 지난해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남농식품을 입점시킨 미국 현지 상설판매장인 꽃마 플러스에서는 3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해는 6억원대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린 해남배추는 올해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에 1000톤을 추가 수출하기로 하는 등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군은 내년에도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농식품 해외인증 취득 비용 지원 등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 등도 실시해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 수출 확대를 통해 해남 농식품의 해외 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해남의 더 많은 농식품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시, 2024년 노인일자리 모집 오늘부터

목포시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목포시, 목포시·하당·하나·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사)건강나눔, 노인직업훈련센터 8개 수행기관에서 4187명의 참여자를 선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먼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참여 희망자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단 사회서비스형 일반 65세 이상, 시장형 일반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참여자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을 내용으로 목포노인직업훈련센터(061-245-2080)가 수행하며,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상시로 상담 가능하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청정바다 물김 위판 한창

청정바다 완도에서 자란 물김 출하가 한창이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일수협 사동리 위판장에서 김 양식 어업인, 금일수협 관계자, 중매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김 초매식을 가졌다.

이날 물김 평균 경매 단가는 1마대(120㎏) 당 16만6000원에 거래됐다.

11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총 4394톤(77억원)의 물김이 위판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산량은 33%, 생산액은 5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총 7만5600여 톤(822억원)의 물김 위판 실적을 기록했다

물김 채취는 내년 4월까지 하며, 해황 여건이 좋아 품질이 좋은 것은 물론 생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총 403개 어가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으며, 참김과 돌김 등의 시설량은 21만5280책이다.

군은 깨끗하고 품질 좋은 김 생산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김 활성 처리제 공급 사업과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최경철 기자

완도에서 자란 물김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완도군 제공

전남도, 동절기 화재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22일까지 32개소 5개 분야

전남도는 관내 전 22개 시·군의 동절기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목욕장 등 총 32개소로, 소방·전기·가스·건축·승강기 5개 분야다.

전남도, 시·군,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분야별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전기·가스 등 사용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소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가 관내 전 22개 시·군의 동절기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도 제공

이를 위해 △피난 탈출구의 진입 및 피난통로 방해 물품 방치 여부 △수전반·전압계·전력계의 동작상태, 과부하·과전압 등 지시계기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 시설 관리상태 △철골 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승강기 비상장치의 작동 및 상태 확인 등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과 소화시설, 대피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한다.

전남도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여부에 대한 후속조치 수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여러 종류의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표본점검 하는 것"이라며, "유사 지적사례를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점검결과를 전파·공유하여, 도내 전체 시설에 선제적인 화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무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2만715건에 34억 800만원

무안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715건에 34억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어 12월에는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 카드결제 ARS(080-450-3838)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해남군은 65세 이상 군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고령일수록 치료 후에도 신경통이 남을 수 있어 증상 완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예방접종 지원은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접종 비용의 50%를 지원, 접종자는 8만7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무료이다. 접종 장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접종 전 보건기관으로 문의가 필요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만 하면 되고,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이 경과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내년 본예산 6001억 확정

무안군, 군민 복지 확충 집중

무안군은 2024년도 본예산이 600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978억원보다 23억원(0.39%) 증가한 것.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6억원(0.63%) 증가한 58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원(7.9%) 감소한 155억원으로 편성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경기회복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245억 원(8.6%) 줄어 세입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지사업과 하수도 인프라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369억원 증가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0.39% 늘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업무추진비(10%), 사무관리비(11%), 민간경상사업보조(18%), 축제예산(30%)을 전년대비 삭감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미적립,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연기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7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49억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7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68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20억원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20억원 △오룡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7.5억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23억원 △현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2억원 △복길·원송·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18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85억원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 5억원 △지역화폐발행 운영 20억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8.5억원 △무안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무안=김행언 기자